

# 현안 급한데... 꼬여가는 인사청문 정국

### 교육·법무·국방·환경·노동 與 “개혁시대 열 트로이카” 野 “문재인맨” 일제히 비판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코앞에 둔 지난 11일 오후 발표된 장관급 인사를 놓고 12일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놓아 꼬여가는 인사청문 정국이 더욱 악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이날 청와대가 전날 발표한 장관 후보자 5명을 두고 ‘코드 인사’ ‘보은인사’ ‘전리품’ 등의 표현까지 써가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코드 인사’는 참여정부 시절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이 정부 인사를 비판할 때 주로 사용했던 표현이다.

또 청와대가 이들 인사를 발표하며 문제점을 스스로 밝힌 것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공약한 5대 비리(병역 면탈·위장전입·논문 표절·부동산 투기·세금 탈루)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관 후보로 지명하면서 ‘100% 흠결없는 사람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위선적 자기합리화라며 “청와대에서 위장전입·음주운전 이력을 선제 공개하는 것은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역과 여성 안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문 대통령이 말한) 5대 공직자 배



김상조 청문보고서 채택 끝내 무산 12일 오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정무위 간사인 이학영 의원 등이 유감표명 기자회견을 한 뒤 자리를 뜨고 있다.

를 배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5대 비리(병역 면탈·위장전입·논문 표절·부동산 투기·세금 탈루)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관 후보로 지명하면서 ‘100% 흠결없는 사람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위선적 자기합리화”라며 “청와대에서 위장전입·음주운전 이력을 선제 공개하는 것은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역과 여성 안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문 대통령이 말한) 5대 공직자 배

“대통령은 탕평인사를 강조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라며 “선거 공신들을 전리품처럼 앉히는 진영 인사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전날 발표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사회 대개혁 시대를 열 ‘개혁 트로이카’”라고 평가한 뒤 “지금까지의 인선만으로도 새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기대치가 역대 최고수준을 달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국민의당 8월 전대 새 지도부 선출

### 이민주 선출방식 등 확정

국민의당은 오는 8월까지 전당대회를 열어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최명길 원내대표인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8월 말 이전 적당한 날짜를 잡아 전당대회를 개최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인은 “전대를 연말로 늦춘다는 얘기가 있어 이에 대한 지도부와 의원들의 의견 교환을 위해 의총을 소집했는데, 실제 그런 의견 제시는 1명도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전대 시기와 절차, 당헌·당규 정비 문제에 대해 내일 지역위원장들

과의 연합회에서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태규 사무총장이 이번 주 내로 시도당 대회와 조직점검, 대선평가위·혁신위 등과 관련한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대 가능 시점에 대한 예비조사를 마치고, 내주 초 비대위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새 지도부 선출 형식을 정기전대로 할지, 임시전대로 할지도 향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원내대표인은 “현재 당헌·당규상 국민의당은 집단지도체제로 돼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려면 단일지도체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

## 국민의당 ‘강경화 인준’ 놓고 이견

### 지도부 불가론 확고... 정동영·박지원 긍정 기류

국민의당 지도부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불가론’을 고수하며 강공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내부에서 호남 민심을 의식한 이견이 불거지고 있어 주목된다. 당장 차기 당권 주자인 정동영 의원(전북 전주병)은 지난 9일 YTN 라디오에서 “강 후보자를 현미경으로만 봐서는 안된다. 망원경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강 후보자는 현장을 뛰어본 외부 전문가다.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며 당론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정 의원은 호남 출신인 김이수 현재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의원총회에서 의견 수렴을 해보아야 한다”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서 세월호 책임을 강하게 주장한 소신 판결은 평가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사견을 전제로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한다거나 꼭 ‘부적격’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까지는 않는다”며 “보고서를 채택하고 표결로 말하면 되는 문제”라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박지원 전 대표(목포) 역시 그동안 SNS를 통해 김이수·강경화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찬성 의견을 밝혀왔다. /임동욱기자 tuim@

## 보수 야당 당권 레이스 돌입

### 한국당 19일부터 전국 투어...바른정당 24~25일 여론조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들이 대선 패배 이후 당을 재건할 지도부 구성 레이스에 돌입했다.

우선 7·3 전당대회를 앞둔 한국당의 경우, 홍준표 전 경남지사와 5선 원유철 의원의 양자대결에서 4선의 신상진 의원의 가세로 3파전이 형성됐으며 김병준 국민대 교수와 신용한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도 출마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대선후보였던 홍 전 지사는 오는 17일 후보등록을 마치고 19일부터 영남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투어에 나설 예정이다.

원유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국당은 정치혁명을 이뤄야 한다. 나는 혁명할 준비가 돼 있다”며 사실상 출마 의사를 내비쳤으며 신상진 의원도 대표 출마를 결심했다. 최고위원에는 친박계 김태흠 의원과 박맹우 의원, 이철우 의원이 도전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박대출·정종섭 의원, 이성현 전 의원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국당 최고위원회는 당 대표와 원내 대표, 정책위의장, 4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당 대표 지명직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선거인단의 유효투표 결과 70%와 여론조사 결과 30%를 합산해 선출되는데 한국당은 선거인단 투표에 대해 모바일 사전투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바른정당은 후보자 등록 마감을 하루 앞둔 만큼 당권 도전 후보자들의 윤곽이 갖춰지고 있다.

현재 출마를 공식 선언한 후보는 김영우(3선), 하태경(재선) 의원이고 출마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힌 후보는 이혜훈(3선), 정운천(재선) 의원이다.

김영우 의원과 하태경 의원은 지난 11일 차례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일단 당권 경쟁이 김영우·이혜훈·하태경·정운천 의원(선수순)의 4파전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추가가 원내당협위원장 등에서 출마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바른정당 선관위는 당원(책임당원 50%·일반당원 20% 반영) 투표를 마친 뒤 24~25일 이틀간 여론조사(30% 반영)를 실시, 종합투표 결과를 토대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지명한다. 투표 결과 최다 득표자가 당 대표에 오르며 2~4위에 오른 후보자는 자동으로 최고위원직에 오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호남, 文정부 국정 지지율 92.3%

### 리얼미터 조사 전국 78.9%...62% “강경화 임명 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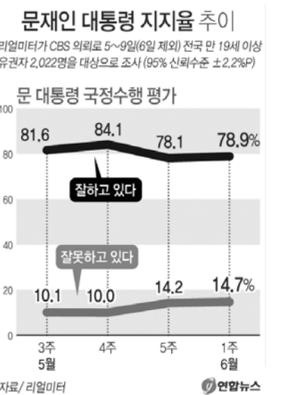
호남 지역의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90%를 넘어섰다. 리얼미터가 지난 5~9일(6일 제외) 전국 유권자 2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2.2%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호남 지역의 긍정 평가는 3.8%p 변동, 92.3%를 나타냈다.

전국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78.9%로 1주 전보다 0.8%포인트 올랐으며 부정적 평가는 14.7%로 0.5%포인트 상승했다. 나머지 6.4%는 ‘잘 모름’이었다.

지역별로는 호남(92.3%·3.8%p ↑), 경기·인천(82.6%·3.8%p ↑) 등지에서 상승 폭이 컸다. 연령별로는 40대(88.3%·3.1%p ↑), 60대 이상(63.7%·1.5%p ↑), 30대(87.4%·1.1%p ↑) 등에서 올랐다.

반면 대구·경북(64.7%·7.2%p ↓), 50대(73.9%·1.3%p ↓), 민주당 지지층(9.2%·1.0%p ↓)에서는 하락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지난 9일 전국 유권자 505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95% 신



뢰 수준, 표본오차 ±4.4%포인트)에서는 ‘강 후보자의 임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2.1%(매우 찬성 32.4%·찬성하는 편 29.7%)로 나타났다. 강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한다는 비율은 30.4%(반대하는 편 15.6%·매우 반대 14.8%)로 집계됐다. /임동욱기자 tuim@

# 유한회사 J&Y 대부는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부동산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기업입니다.

## NPL관련업무를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 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 NPL(근저당권)투자는?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 NPL채권 매입하여 투자 수익에 참여하실 분

▶총 매입금액 : 11억원

▶1인 2,000만원 이상

▶투자금 회수기간 : 6~8개월

▶근저당설정 조건

- 채권 물건지는 투자하시는 분에 한하여 공개합니다.

## NPL 채권 매입 전문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자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

등록번호 2017금감원-0790

# 유한회사 J&Y 대부 ☎ 062)382-4987

사업자등록번호 635-86-00606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4954